창사 67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치료 잘하는 병원
친절한 병원
목포 청연한방병원

제9028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4 SINCE 1991 kjdaily.com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음력 8월 25일)

“국가 AI컴퓨팅센터 반드시 광주로” 막바지 총력전

컨소시엄 구성 마무리 단계 돌입
20일께 확정…21일 공모신청 접수
첨단 3지구 ‘부지·전력·용수’ 확보
전국 유치 경쟁 속 ‘최적지’ 강조
姜시장 “AI핵심인프라 확보 최선”

막 오른 글로벌 AI컨퍼런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 등 최신 기술 공유와 국내외 AI 관련 동향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국제 AI 학술대회 ‘글로벌 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5’와 ‘AI TECH+2025’가 15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공모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시가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최종 검토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부지·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을 모두 갖춘 광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경쟁력과 이재명 정부 공약이라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앞세워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국내 대기업 1곳과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공모 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현재 3곳 이상의 기업과 접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최종 컨소시엄 구성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급 AI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규모만 약 2조5천억원에 달한다.

광주는 이미 ‘AI 중심도시’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AI집적단지 내 5만㎡ 부지를 확보했으며 하루 1천t 규모의 용수 공급 계획도 수립했다.

전력 인프라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첨단변전소가 직선거리 300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대 120MW 규모의 전력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초기 전력 40MW는 물론, 5만장까지 GPU(그래픽처리장치) 확장 시 필요한 120MW의 전력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한국전력의 ‘전력계통 영향평가 기술 분석자료’를 확보해 산업통상자원부 본평가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책적 지원 여건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첨단3지구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신설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를 5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또한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는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경험에서도 단연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AI 1단계 사업을 통해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1천166개 기업·연구소에 2천200건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6천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아 향후 5년 간 기업들의 컴퓨팅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AI 반도체 검증 인프라도 이미 확보했다. 광주는 2023-2025년 265억원을 투입해 국산 AI반도체(NPU) 서버팜(22.8PF)과 AI칩 실증 환경(퓨리오사, 리벨리온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국가 AI컴퓨팅센터 완공 시 국산 반도체 검증 및 실증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77종의 실증 장비를 기반으로 기초연구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실증 체계’를 구축했으며, 에너지·모빌리티·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주기 실증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AI 인재 양성 체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는 AI영재고-AI융합대학-AI대학원-AI사관학교로 이어지는 ‘인재 사다리’를 완성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 4개 대학의 AI융합대학에는 5천532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는 반도체 기업 25개를 포함한 337개 기업이 AI 관련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160개 기업이 광주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관련 일자리도 2020년 426명에서 지난해 1천22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이미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 AI 산업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끌 것”이라며 “유치에 성공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Today

“스웨덴서 자랐지만 내 뿌리는 이곳에” 6면
남도인물열전-최고령 의병장 죽천 박광전 14면
2025 KIA-부진속에 피어난 ‘새희망’ 16면

‘농어촌기본소득사업’ 국비 분담 상향 절실

공모 49개郡 신청…경쟁률 8.2대1
시·도재정 여건따라 郡부담 제각각
주철현 “예산 부담 지방 전가 안돼”
농림장관“국회 심사과정 증액 노력”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분담 상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郡) 중 약 6개 군을 선정,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해 약 8.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인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모 결과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를 분담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세계 女골프 톱랭커들 해남서 ‘굿샷~’

LPGA BMW 챔피언십 오늘 개막
파인비치CC서 19일까지 기량 겨뤄

15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이나, 야마시타 미유, 김효주, 해나 그린, 김아림, 유해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세계 30개 국가를 대표하는 여자골프 톱랭커들이 청정 남도 해남에 총집결한다.

16일부터 19일까지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LPGA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호남권 최초로 개최되는 LPGA 정규투어 대회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생중계되며 가을빛으로 물든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무대 삼아 세계 여자골프의 화려한 축제가 막을 올린다.

대회에는 메이저 2회 우승의 세계랭킹 4위 이민지를 비롯해 고진영·김효주·유해란, 캐나다의 브룩 헨더슨, 일본의 야마시타 미유, 스웨덴의 마야 스타르크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출전한다. 특히 전남도 추천으로 순천 출신 이정은6이 특별초청선수로 합류하면서 해남은 세계 여자골프의 중심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해남의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스윙을 펼치는 순간 전남의 자연과 문화가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라며 “LPGA 대회를 계기로 전남이 글로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고 남도의 매력이 세계 속에 깊이 각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CMYK